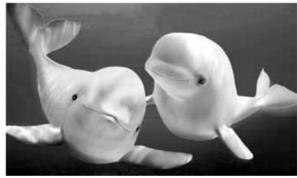


# 토종 돌고래 상괭이 “바다로 돌아가요”

작년 2월 경남 거제서 잡혀  
치료·훈련 후 진도서 방류  
남·서해안에 4만마리 서식  
환경파괴 등으로 멸종위기



부산 아쿠아리움의 상괭이.



‘사람을 닮은 인어’나 ‘웃는 고래’로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두마리가 치료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14일 진도군 의신면 바다에 방류됐다. <진도군 제공>

지난해 2월 그물에 걸려 부상을 입고 구조됐던 토종 돌고래 상괭이 2마리가 치료를 마치고 바다로 돌아갔다.

국립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은 14일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토종 돌고래 상괭이 ‘바다’와 ‘동백’의 자연 방류식을 가졌다. 부산 아쿠아리움의 상괭이 자연 방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방류된 ‘바다’와 ‘동백’은 지난해 경남 거제도 해상에 설치된 정지망에 주둥이 부분 뼈가 드러날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로 혼획(混獲=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엉뚱한 종이 우연히 걸려 어획되는 것)됐다.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동물 전문구조 치료기관인 부산 아쿠아리움은 상괭이를 인수받아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와 외과 치료, 영양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올 초부터 아쿠아리움에서 1차 야생 적응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는 진도 앞바다 야생 가두리에서 2

차 야생 적응훈련을 시작했다. 이날 방류된 상괭이 몸에는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태그를 부착했다.

앞서 부산 아쿠아리움은 지난해 7월에도 경남 통영 해상에 치료를 마친 상괭이 ‘누리’와 ‘마루’를 풀어놓은 바 있다.

한편 상괭이는 손암 정약전(1758~1816) 선생이 ‘자산어보’에 “사람을 닮아 두 젓이 있다”고 묘사한 한국 토종 돌고래이다. 최근 서식지 오염과 환경파괴, 포획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 및 국제 자연보존연맹(IUCN) 취약(VU)등급의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 남·서해 연안에 4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류 총 2350마리 중 81.7%(1920마리)가 상괭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순천교도소 전국 기능경기대회 잇단 수상

수형자 직업훈련교육 결실



순천교도소 수형자가 최근 열린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미장 부문)을 수상했다. 순천교도소는 모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건축목공 등 다양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교도소 제공>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의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이 결실을 맺고 있다.

14일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미장 등 직업 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광주와 전남 지방경기대회에서 수형자 8명 전원이 입상(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2명)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외 최근에는 수형자 배모(40)씨가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제4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미장 부문에서 금상(상금 1200만원)을 수상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다, 2010년부터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해 건축 일반시공 산업기사 등 5종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직업훈련 교도소인 순천교도소는 수형자 150명을 대상으로 건축목공과 정보처리 등 8개 직종의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올해 각종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결과 산업기사 30명, 기능사 64명이 관련 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여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도배 기능사반을 운영, 지금까지 8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은 매년 2차례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도배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병일 소장은 “앞으로도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목포~제주 여객 항로 세월호 딛고 활기 찾아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됐던 목포~제주간 항로가 최근 수확여행 재개에 따라 활기를 되찾고 있다.

14일 세월고속훼리(대표이사 회장 이혁영)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중단됐던 수확여행이 9월부터 재개되면서 지난달 15일 2개 학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88개 학교 1만3000여 명의 학생들이 목포항로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수확여행 재개에 앞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월 세월고속훼리(주)를 방문해 국내 최대 초호화 여객선인 ‘시스템루즈호’(2만4000t)의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세월고속훼리(주)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관계자들과 운영위원회 학부모를 주축으로 초청해 안전 설명회를 여는 한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박안전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전북 소식

### 군산대 16일 새만금 미래전략심포지엄

새만금개발청 공동

군산대학교 새만금 종합개발원(SRID)과 새만금개발청은 16일 오후 2시 군산대 산학협력관에서 새만금사업 25년과 개발청 개청 1년을 기념해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새만금 투자협력, 생태관광과 인재 양성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새만금 신산업과 글로벌 투자협력방안 ▲새만금의 생태적 관리 방향 ▲새만금 복합리조트 투자 유치 전략 ▲새만금 인재양성과 대학 특성화산업단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 군산대 SRID 김민영 원장의 사회로 전문가 6명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새만금 수경기본계획(MP)을 총괄한 국토연구원의 류승한 연구위원, 장병권 호원대 교수, 전북도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개발청 김진태 투자전략국장이 나선다.

군산대는 지난 2009년에 새만금 종합개발연구원(SRID)을 개원, 환경해 새만금 연구총서를 간행하고 국제 환경해 연구포럼을 개최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 시민의 장’ 수상자 6명 선정



김희선 유연필 김매자 강광 김호석 이정태

정읍시는 최근 ‘2014년 정읍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6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문화장 김희선(64) 한국예총 정읍지부장, 새마을장 유연필(72), 공익장 김매자(74), 체육장 강광(78), 애향장 김호석(72), 효열장 이정태(79) 씨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장 김희선 한국예총 정읍지부장은 황토현 전국 농악경연대회 육성 등 정읍지역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했고, 새마을장 유연필(농업) 씨는 30여 년간 새마을지도자로 마을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익장 김매자(주부)씨는 15년간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아 활동하며 지역주

민의식개혁과 마을발전에 일조했다. 체육장 강광(사영업) 씨는 각종 전국대회 유치와 핸드볼실업팀 창단 등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했다.

애향장 김호석(사업)씨는 환경 관련 대일개발(주)을 운영하면서 재경 정읍 시민회 발전을 위한 기부활동을 통해 향우들의 화합에 기여했다.

효열장 이정태(농업)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거동이 불편한 104세의 노모를 40여 년간 봉양하고, 주민화합과 마을 발전에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정읍시민의 장’ 시상식은 11월 1일 내장산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정읍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 소리축제 조직위-프랑스 ‘문화의 집’ MOU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일 프랑스 세계 문화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직위는 올해 소리축제를 방문한 아외드 에스버 세계 문화의 집 관장과 만나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2015년과 2016년 ‘한-프랑스 교류의 해 25주년’을 맞아 전

주 세계소리축제와 프랑스 월드뮤직 특집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기로 했다.

세계 문화의 집은 1997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세계적인 축제인 ‘상상축제’로 잘 알려졌다. 이 축제에서 한국의 전통예술(판소리, 봉산탈춤, 씻김굿, 영산회상,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산조 등)이 소개된 바 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월계동 4층 17억(보2.2억 월850만)
- 상가주택, 원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도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4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8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